



BTS '방방콘' 굿즈 보조 배터리 불량 속출하자... 박히트 "전망 교환"  
BTS 소속사 박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열린 '방방콘 더 라이브' 공식 기념상품으로 판매한 보조 배터리 가운데 외관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녹아내린 것 같은 불량품이 속출하자 불량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전망 교환해주기로 했다.

## 내 삶은 춤 위한 리허설... 모든 무대를 마지막처럼

장르 넘나드는 무용수 김주원  
내달 '사군자\_생의 계절' 무대에  
정구호 등 어벤져스급 창작진

"나이 들며 연습량 2~3배 늘렸죠  
젊은 시절 그대로 무대 서기 위해"

이제 '발레리나' 만으로는 그를 수식할 수 없다.

2012년 6월, 15년간 그의 이름과 동의어였던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타이틀을 내려놓은 김주원은 백조가 된 듯 날아올라 무용, 연극, 뮤지컬 등 장르의 벽을 넘나들었고, 내려앉은 무대마다 깊은 발자국을 새겼다. 다음 달 22일 서울 정동극장 개관 25주년 기념공연 '김주원의 사군자\_생의 계절' (이하 '사군자')로 돌아오는 그를 8일 만났다.

작년 7월 재즈 가수 웅산과 함께한 '탱고 발레', 11월 초까지 공연한 연극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 이어 근 1년 만의 무대. 사군자를 테마로 계절의 순환 속에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하는 인연과 운회의 이야기를 담는다. 배우와 무용수가 함께 무대에 오르고, 춤·대사·음악이 한데 담기는 장르를 규정할 수 없는 공연이다. 김주원의 표현으로는 "언어와 춤의 듀엣", "오랫동안 세계 어디서나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인 것을 춤에 담고 싶었어요. 외롭고 힘들어도 걸어야 하는 길,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 역시 늘 표현하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그와 함께할 창작진은 가히 '공연계 어벤져스' 급이다. 여러 공연에서 압도적인 한국미(美)를 선보였던 디자이너 정구호가 예술감독을 맡고, 요즘 대학로에서 가장 핫한 박소영 연출가와 지이선 작가가 합류했다. 음악은 영화 '기생충'의 정재일 음악감독이고, 배우 박해수와 윤나무, 발레리나 김현웅과 윤전일이 함께 무대에 선다.

왜 '인연'을 들여다보게 된 걸까. 김주원은 "종마처럼 내쳐 달렸던 젊은 시절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2017년 4월 이미 마흔 살인데, 연습하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누운 채 응급실로 실려갔죠. 제 발로는 화장실도 못 가요. 걸는 운동부터 겨우 시작해 5월쯤 겨우 걸어서 어느 벤치에 누웠는데 어린 잎 나뭇가지 사이로



김주원의 사군자\_생의 계절 예술감독을 맡은 디자이너 정구호는 반투명 실크 소재 천에 감싸인 무용수 김주원의 모습으로 운회와 환생, 만남과 헤어짐의 인연에 관한 이 공연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구현했다. 작은 사진은 8일 만난 김주원.



김주원 촬영기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덜컥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나. 왜 이걸 처음 보지. 나, 허리 다쳐서 너무 행복하다...' 매일 그 벤치에 가서 누웠어요. 근데 연둣빛 어린 잎이 2주도 안 돼 새파래져요. 아, 아름다운 시절은 이렇게 짧구나..."

그는 "매번 무대에 설 때 마지막일지

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몇 년 전 '백조의 호수'를 하면서 마지막 '백조' 인가 싶었는데, 정말 마지막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매듭을 지었고, 이제 44세 발레리나가 할 수 있는 걸 하려 해요. 전에는 내 춤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동료들을 보게 되고 관객과 교감도 깊어져요. 그래서 감사해요. 무언가를 더욱 갈구하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만 춤 때문에 살고 춤 때문에 행복해요."

수석 졸업한 불소이 발레학교 시절부터 독하게 연습하기로 유명했던 그는 지금도 하루 네댓 시간만 잔다. 새벽 6시면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무조건 발레고무관 위에 엎드린다. 하루 연습의 시작이다. "나이 먹을수록 연습량이 점점 더 늘어. 몸이 젊을 때 느낌을 기억하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2~3배를 연습해야 토슈즈를 신을 수 있어요."

30년 넘게 춤을 춘 그에게, 이제는 춤이 무엇인지, 그만의 답을 찾았는지 물었다. 김주원은 "내게 춤은 리허설"이라고 했다. "처음 발레를 시작한 때부터 제 인생은 쪽 춤을 위한 리허설이었어요. 춤을 만들고, 춤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춤 속 이야기에서 배우고 성장했죠. 이제 조금씩 나이 먹으며 보니, 제 인생이 춤에 녹아나기 시작해요. 춤이 제 인생의 리허설인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이 춤을 위한 리허설이 돼 가고 있어요."

김주원은 "그저 지금 여기, 주어진 순간에 충실하려 한다"고 했다. "지금은 인터뷰, 그리고 나면 연습, 리허설, 또 무대. 최선을 다해 순간을 살고 싶어요. 불흐르듯 흘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이 제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거요? 지금까지 안 해본 거 전부다!" 이태훈 기자

## 가난한 유학생들 안타까워... '랜선 음악 아카데미' 열어요

피아니스트 최유진 교수  
온라인에 '유진 온 클래식' 열어  
20국 강사 130여명이 줌으로 수업



최유진 피아니스트

최유진은 "비전공자도 온라인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랜선 음악원'을 세우고 싶었다"고 했다.

피아니스트 최유진(42) 스위스 칼라이도스 음대 교수가 온라인 음악 아카데미 '유진 온 클래식(Eugene On Classics)'을 연다. 3년 전부터 구상, 오는 20일쯤부터 전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화상 앱 '줌(zoom)'으로 레슨 받을 수 있는 '랜선 음악원'이다.

피아노·바이올린·비올라·첼로·성악·지휘 등 정통 클래식은 물론 재즈·퍼커션·클래식 기타 등 다양하다. 강사진에도 국경이 없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20국 130여 명이 이른다. 가브리엘 초도스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좌교수와 보리스 버먼 예일대 교수(이상 피아노)를 비롯해 뉴욕 링컨센터 체임버 나옴대 교수(이상 바이올린), BBC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 캐럴라인 해리스,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클래식 기타 듀오 쿠펜스키 등이다.

독일에서 만난 가난한 유학생들이 온라인 아카데미를 구상하게 했다. 예일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을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 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최 교수는 "학비가 싼 독일로 유학 왔지만 집세와

레슨비를 내고 나면 돈이 없어 고생하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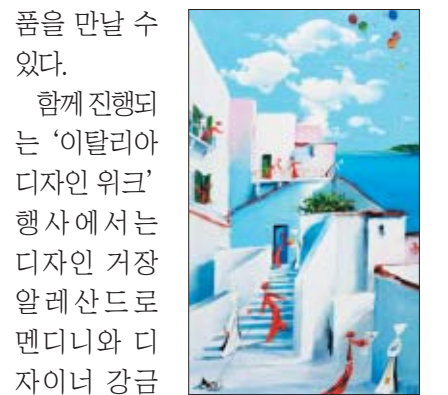
"많은 음악도가 잘못된 정보로 입학시험에 임하는 것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했다. "무작정 현지에 가서 돈과 시간을 허비해요. 한국에서 준비한 제대로 해가면 사전 체류 없이 경비를 3분의 1만 쓰기도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온라인 레슨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최 교수는 "내 집 내 가족 곁에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결실을 보는 법"이라며 "비전공자도 레슨 받을 수 있도록 아카데미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고 했다. 지난해 소니 클래식에서 데뷔 앨범 '리스트: 리플렉스'를 낸 그는 독일에서 열리는 피아노 축제인 '계겐 텐 슈트롬'과 '레브 나토체니'의 음악감독 등을 지냈다. 김경은 기자

## 이토록 아름다운 피렌체... 올리비에로 올리비에리 작품展

코로나로 외국 여행길이 막힌 요즘, 지중해의 파란 하늘과 맑은 햇살을 느끼게 해 줄 전시가 열린다. 현대백화점 서울 압구정 본점에서 13일까지 열리는 이탈리아 화가 올리비에로 올리비에리(86)의 작품전이다.

피렌체에서 태어난 올리비에리는 르네상스의 본산이자 미켈란젤로·보티첼리 같은 거장들을 낳은 고향의 동화적 풍경을 화폭에 옮겨왔다. 지중해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을 시선을 잡아끄는 선명한 색채와 시적인 표현으로 포착해 사랑받았다. 이번 전시에도 '이태리 남쪽 마을' (사진) '이토록 아름다운 피렌체' 등 작



품을 만날 수 있다. 함께 진행되는 '이탈리아 디자인 위크' 행사에서는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와 디자이너 강금성이 협업한 의자, 플라스틱을 명품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디자인 명가 카르텔(Kartell)의 전시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채민기 기자

## 코로나 집콕하며... 영화 '엑시트' '타짜' 제일 많이 봤다

(왓차 1위) (웨이브 1위)

코로나 시작된 2월부터 8월까지 집에서 OTT로 영화 관람 늘어 2위 '기생충', 3위 '악인전' 순 외국 영화는 '컨테이션' 많이 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왓차'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1위로 꼽힌 '엑시트'의 한 장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회사원 최모(29)씨는 극장에서 이미 봤던 영화 '기생충'과 '컨테이션'을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다시 감상했다. 최씨는 "스마트TV로는 넷플릭스를 연결해 보고, 넷플릭스에 없는 영화들은 왓차 모바일 앱으로 감상한다"고 했다.

신작 영화 개봉이 뜸해지고, 영화관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집 안에서 영화를 보는 시간이 늘고 있다. 국내 대표 OTT인 왓차와 웨이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된 2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이 본 영화 순위를 조사한 결과, 왓차에선 '엑시트'가 '기생충'을 뛰어넘고 1위를 차지했다. 웨이브에선 '타짜: 원 아이드 잭'이 1위, '타짜-신의 손'이 4위로 타짜 시리즈가 강세를 보였다. 영화 '엑시트'는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을 탈출하는 한국형 재난 영화. 현실적인 청춘 캐릭터와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로 호평받으며 940만 관객을 동원한 작년 여름 흥행작이다. 왓차에서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을 제치고 많이 본 영화 1위에 올랐다. 2위 '기생충'에 이어 3위 '악인전', 4위 '82년생 김지영', 5위 '극한직업' 순으로 인기였다. 10위 안에 든 영화 대부분이 지난해 개봉작이었지만 2018년 개봉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은 6위를 차지했다. 국

내에서 최근 재개봉할 정도로 팬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은 영화. 애절한 첫사랑과 이탈리아의 뜨거운 여름 풍경이 어우러지며 여름 영화의 클래식으로 꼽힌다. 이옥섭 감독의 영화 '메기' (2018)는 8위로 한국 독립영화 중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7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측 영화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던 '컨테이션'이다.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한다는 설정으로 9년 전 개봉한

영화임에도 순위를 역주행했다. 출연했던 배우 케이트 윈즐릿은 최근 인터뷰에서 "컨테이션 촬영을 앞두고 세계 최고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만난 경험을 되새겼다"면서 "남들이 '미쳤냐'고 할 정도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고 했다.

'묻고 더블로 가!' 같은 명대사로 지난해 '곽철용(김우수) 신드롬'을 일으킨 '타짜' 시리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웨이브에서는 타짜 3편인 '타짜: 원 아이드 잭'이 1위, '타짜-신의 손'이 4위에 올랐고, 왓차에서는 '타짜: 원 아이드 잭'이 9위로 10위 안에 들었다.

웨이브에선 영화 '마스터' (2위), '사자' (3위), '마녀' (5위) 등 액션·미스터리물이 강세였다. 대다수 국내 영화가 차지한 가운데 외국 영화 중에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10위), '본노의 질주: 더 세븐' (16위), '어바웃타임' (18위)을 많이 시청했다. 왓차에서 인기 있었던 외국 영화는 '서지' (10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11위), '어바웃타임' (13위), '라라랜드' (14위) 등이었다. 백수진 기자

### 一事一言

#### 느낌이 먼저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조선시대 내의원 의관이었던 김광국(1727~1797)은 컬렉터이자 비평가였다. 그는 동시대 화가뿐 아니라 고려와 조선, 중국의 역대 회화, 일본의 목판화인 우키요에, 러시아 회화, 네덜란드 풍경 판화까지 수 집했다. 평생에 걸쳐 모은 그림은 '석농화원(石農畵苑)'이라는 10권짜리 화집에 흠뻑했지만 책을 펼치면 오른쪽에는 그가 모은 그림이, 왼쪽에는 화가에 대한 설명과 비평이 적혀 있다.

그는 객관적이고 예리한 비평가였지만 세상에 재능이 드러나지 않아 명성을 얻지 못한 화가의 그림을 설명할 때는 슬픔에 젖어 들었다. 자신이 과거에 흠평했던 우키요에를 다시 보니 꽤 좋더라 생각이 달라졌다. 진솔한 평가를 신기하게 했다. 김광국은 십대 때부터 모았던 화집을 완성한 후 문인 유한준(1732~1811)에게 발문을 부탁했다. '그림에는 그것을 아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고, 모으는 자가 있다'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알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된다'는 격언이 그의 문장에서 나왔다. 수집가의 안목에 대한 이 문구는 미술

사학자 유홍준 교수에 의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로 번안되어 유명해졌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이 말은 가끔 오독되기도 한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알지 못하면 즐길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지레 포기하게 된다.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 '이렇게 많은 지식을 다 알려면 나는 틀렸네'와 같은 좌절감을 주는 일이 아님에도 그림을 사랑하게 된 이는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내 안에 고정되었던 시선이 바깥을 향해 열린다. 그림 한 점 앞에 오래 머물기도 하고, 이미 본 그림을 또 보러 가기도 한다. 화가의 시선이 도달한 공간, 붓을 잡은 이의 시간에 스치던 생각과 감정에 닿는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 언제나 그랬지만, 느낌이 먼저다. 정명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